

49호

Issue & Review
on Democracy

‘5·18 세계화’는 이루어졌는가?

– 5·18 세계화의 의미, 역사, 과제 –

김 찬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 과장

‘5·18 세계화’는 이루어졌는가?

– 5·18 세계화의 의미, 역사, 과제 –

김 찬 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 과장

01

들어가며

1980년 5월 발생한 5·18민중항쟁은 한국 사회 저항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계기가 된 사건이다. 광주 시민은 항쟁을 통해 신군부의 폭력적 진압에 자발적으로 저항하며 역사의 주역으로 거듭났다.¹⁾ 폭력적 권력 집단에 대한 집단적 저항을 경험한 시민은 체제에 순응하는 수동적이고 복종적인 존재에서 자율적 공동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는, 나아가 한국 민주주의를 한 단계 진전시킨 역사의 주역이 된 것이다.

5·18민중항쟁은 비극으로 끝이 났으나 5·18 민중항쟁의 기억을 환기시키려는 세력은 이후 지속적으로 권위주의 독재 권력에 저항했으며 1987년 6·10민주항쟁을 통해 민주화 체제로 전환을 이루어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투쟁과 희생은 마침내 가해자 집단을 단죄하고 그 명예를 회복하였다. 5·18민중항쟁은 시민투쟁을 통해 국가 범죄를 단죄하고 정의 실현을 이루어낸 상징적 사례로 한국을 넘어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세계 시민사회에 깊은 영향을 주었다.

1987년 6·10민주항쟁 이후 같은 해 7~9월에 발생한 노동자대투쟁은 새로운 연대투쟁을 통해 권력과 자본에 저항하는 방식을 경험하였다. 80년대식 체제비판적 운동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이러한 연대성을 기반으로 전개된 대중운동 방식은 1990년대에 들어서 새로운 시민운동의 길을 개척하였다. 특히 시민참여, 교육개혁, 방송개혁, 환경정의와 성평등, 주민자치, 국제연대에서 이러한 새로운 운동의 방법과 ‘연대성’이 강조되었다.

새롭게 발생한 시민운동은 기존 민중운동과 차이점을 보였는데, 무엇보다 시민참여에 기반한 합법적인 운동 방식을 추구했다는 점이다. 동시에 새로운 시민운동은 그동안의 일국적 관점에서 벗어나 ‘국제연대’에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 1993년 리영희는 ‘아시아 시민연대론’을 주장했는데, 실제로 동아시아에서 시민연대를 통해 형성된 ‘연대 활동’은 각 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권위주의 독재정치에 대한 효과적인 저항 방식임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흐름은 광주·전남에도 영향을 주었다. 1994년 지식인과 시민운동가가 함께 조직한 ‘광주시민연대’는 이 시기에 조직된 대표적인 광주지역의 시민운동단체였다. 당시 광주에는 5·18민중항쟁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그리고 명예회복을 위한 기념사업이 진행되고 있었고 광주시민연대는 관 주도 ‘오월성역화’에 반대하여 대안을 제시하며 단숨에 지역을 대표하는

1) 안병욱(1999), 「5·18광주민중항쟁의 의의와 역사적 평가」, 학술단체협의회, p. 21.

시민운동단체로 발전하였다. 또한, 광주시민연대는 지역주의 심화²⁾를 극복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도 주도하였다. 이들 활동은 2000년대 이후에는 5·18기념재단 등으로 이어졌고 여러 긍정적인 성과를 가져왔지만 몇몇 문제점도 노정되었다.

필자는 5·18기념재단에서 199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제팀장, 교류연구팀장, 사무처장으로서 근무하였으며 '광주아시아포럼', '광주인권상', '5·18아카데미', '국제인턴 교류사업', '국제단체 지원사업'과 같은 국제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글은 1990년대 이후 광주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주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5·18 세계화' 활동을 성찰함으로써 40주년을 맞이한 '5·18 세계화' 활동에 대한 교훈을 얻기 위해 준비되었다.

2) 5월운동은 광주항쟁의 민주적 정당성과 그 역사적 의의가 전 국민에 의해 인정되는 명예로운 결과를 기대해왔으나, 항쟁에서 가해자였던 신군부세력을 중심으로 한 냉전수구세력은 비등한 지역감정을 역이용하여 광주항쟁을 국지화하고 광주를 고립화시키려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나간채(2012), 『한국의 오월운동』, 한울, p. 421 참조.

02

‘5·18 세계화’의 역사: 5·18에 대한 세계화에서 5·18에 기반한 세계화로

광주시민연대는 ‘5·18성역화 사업’이 여론 수렴 과정 없이 당시 김영삼 정부의 주도하에 추진되는 것에 반발하여 1994년 조직된 단체였다. 그러나 광주시민연대의 활동은 5·18기념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5·18 세계화’를 통한 국제연대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사실 5·18민중항쟁에 대한 ‘세계화’는 이미 1980년대부터 진행되고 있었다. 1980년 5·18민중항쟁 직후 관련 진상규명 활동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동포와 현지 지식인을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해외의 동포와 지식인들은 5·18민중항쟁 당시 현장을 취재한 외신 보도를 접하고 주저 없이 항의 시위를 조직하였다. 이러한 활동은 5·18 진상과 전두환 신군부 만행을 국제적으로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독일에서는 여러 도시에서 수많은 연대 운동이 일어났다. 서명운동, 유인물배포, 카드발송, 단식투쟁, 추모미사, 그리고 한국 대사관 앞 시위가 진행되었다. 특히 독일 교민을 중심으로 1980년부터 ‘재유럽오월민중제’ 행사를 지속해왔으며, 5·18 피해자를 초청하여 위로하기도 하였다. 미국에서는 재미 유학생을 중심으로 군부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위가 조직되었다. 또한 신군부 수배를 피해 미국으로 망명한 윤한봉은 현지에서 동포청년을 조직하여 민족교육을 실천하고 한국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을 지원하였다. 이러한 국제적인 지원과 국내에서의 5·18진상규명 투쟁의 성과로 1990년대 중반 전두환, 노태우를 비롯한 신군부 주요 가담자를 사법처리하고 관련 피해자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차원의 배상이 실현될 수 있었다.

광주시민연대의 국제연대활동은 이러한 성과 위에서 가능했지만 기존의 5·18 ‘세계화’와는 차이가 있었다. 우선 1980년대 5·18 ‘세계화’가 해외 현지의 지식인에 의한 활동이었다면 광주시민연대의 ‘5·18 세계화’는 광주에서 시작된 최초의 국제연대활동이었다. 또한, 1980년대 활동이 주로 5·18의 참혹한 진상을 세계에 알리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 제3세계에서는 한국이 민주화 이행과 함께 과거사 청산에 성공한 사례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는데 그 핵심에는 ‘5·18 항쟁’이 놓여져 있었다. 그렇기에 광주시민연대는 주로 아시아 개도국 인권피해자와 활동가에게 모범적인 사례로서 ‘5·18’ 사례를 제공하고 이들 나라의 저항운동에 촉매가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에 주력하였다.

1994년 5월 17일 광주시민연대에 의해 개최된 제1회 국제심포지엄은 광주에서 개최된 5·18 관련 첫 국제행사였다. 이 심포지엄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5·18이 보편적 가치인 자유,

정의, 평화를 전 세계에 알려주었음을 확인하였다'며 세계사적 측면에서 그 의미를 처음 평가하였다. 일본 슈오대 교수 이토 나리히코는 5·18민중항쟁이 1986년 필리핀 민주화 운동, 1992년 태국 민주화 운동, 일본 시민운동, 그리고 한국 문민정부 출범에 영향을 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냉전체제가 낳은 구조를 근본적으로 부정한 아시아 최초 민주항쟁이라고 규정하였다.

이후에도 광주의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하고자 하는 광주시민연대의 국제연대활동은 계속되었다. 1995년 아르헨티나 인권단체 관계자³⁾를 광주로 초청하고, 1996년에는 '국제청년캠프'를 열었다. 1997년에는 '5·18 특파원 리포트' 기자초청행사를 개최하였으며 1998년에는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를 개최하여 아시아에서 시민연대를 조직하기도 하였다.⁴⁾

광주 시민연대의 국제연대 활동은 아시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 침해사건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점차 확장되었다. 1999년에는 아시아인권위원회(AHRC)의 요청으로 스리랑카 강제실종 희생자와 피해가족에 대한 추모비 건립과 지원 활동을 추진했다. 2000년 이후 광주 시민연대는 국제활동을 독립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제교류센터를 부설기관으로 설립하였으나 아쉽게도 자원부족으로 국제연대 활동은 지속되지 못했다. 대신 국제교류센터를 통해 광주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방문객을 상대로 광주와 5·18을 소개하는 활동을 지속해 갔다. 또한 광주국제교류센터에서는 오월음악회를 매년 개최하여 기금을 모아 아시아 지역을 지원하였으며, 2014년부터는 광주광역시 주관하는 세계인권도시포럼 행사를 주관하고 있다.

3) 오월 광장 어머니회는 1976년에서 1983년까지 아르헨티나를 통치한 군사독재가 일으킨 '더러운 전쟁' 기간에 실종된 사람들의 어머니들이 만든 단체이다. 더러운 전쟁(Guerra Sucia)은 호르헤 비델라 군사정권에 의해 국가에 의한 테러, 고문, 강제실종, 정보 조작을 자행한 시기를 말한다. 학생·기자·청년을 비롯하여 1만여 명의 몬토네로스와 인민혁명군의 게릴라가 실종됐고, 최소 9000명에서 최대 3만명에 달하는 사람이 실종되거나 살해된 것으로 추정된다.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 도심에는 현재에도 '오월광장'이 있으며, 지금도 실종자 가족들은 머리에 흰색 수건을 두른 채 자식을 돌려달라며 침묵의 원을 그리고 있다.

4) 정근식(2005), 「대한민국 5·18: '광주'의 전국화 명제를 다시 생각함」, 『기억과 전망』 10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p. 86.

03

‘인권’ 중심의 5·18 세계화 담론 확장의 성과와 한계

이처럼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 활동은 ‘인권’이 강조되고 아시아인권운동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확장되었다. 특히 1998년 5월에 개최한 ‘아시아인권헌장 선언대회’는 아시아 16개국 인권전문가와 운동가 36명이 모여 아시아 인권현실, 인권 침해사례, 인권기구 필요성을 토론했고 ‘아시아인권헌장’과 ‘광주선언’을 채택했다. 이를 주도한 아시아인권위원회는 “아시아인권헌장은 세계인권선언의 보편성과 이념을 수용하면서 ‘빈곤’과 ‘체제의 억압’이라는 이중 고통을 받고 있는 아시아인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오월 진상규명운동을 주도한 당사자와 민중운동 진영에서는 이러한 확장된 ‘인권’ 개념을 즉시 수용하지 않았다. 이들이 볼 때 광주시민연대의 인권 지향성이 운동을 통한 사회변화보다는 기존 체제 안에서 개인 권리에 대한 제도적 보완을 요구하는 것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실제 광주시민연대가 ‘5·18 세계화’를 위해 추진한 국제연대활동은 1980년 민족민주운동이 경험한 저항적 방식보다는 ‘교류 협력적’ 관계를 통한 상호존중과 호혜 관계에 집중되어 있었다.

광주민주연대의 ‘5·18 세계화’가 인권운동으로 이어진 배경에는 첫째, 5·18민중항쟁이 국가폭력에 의한 사건이며 인권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둘째, 비록 폭력이 인권을 짓밟았으나 시민은 저항을 통해 폭력을 주도한 집단을 단죄했다는 점이다. 말하자면 민주화가 진전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체제변혁적 저항운동이 아니라 권리 확장을 위한 제도개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광주시민연대의 ‘인권운동’은 ‘시민권’이 가지는 일부 의미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냈다. 1950년 마셜이 주장한 ‘시민권’에 따르면 이는 사회구성원 모두에게 부여되는 ‘지위(status)’로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가질 수 있는 자격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국적 ‘시민권 중심 인권담론’⁵⁾이 강조되면서 운동적 차원에서 초국적인 인권개념, 사회적 통합, 삶을 위한 기본적 조건, 소수자 권익 옹호 등이 언급되지 않았다.

5) 독일의 경험은 ‘시민권의 정치’와 ‘인권의 정치’ 사이의 격차를 보여준다. 즉, 전후 독일사회가 기본법에서부터 인권의 언어를 사용하고 적극적으로 법의 지배 속에 포함시켜 왔지만, 그것은 국민국가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진 시민권의 성공적 실현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개념적 불일치는 자국 시민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작금의 독일사회에서 난민 인권을 놓고 벌어지는 논쟁과 혼란은 일국적 시민권 관념과 초국적 인권 관념 간의 차이와 긴장으로 인해 초래된 측면이 크다. 이런 점은 점차 다민족, 다문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는 한국 사회에 큰 함의를 준다. 자세한 내용은 조효제(2009), 『인권의 대전환』, 교양인, p. 10 참조.

이것은 결국 상징적 차원에서 ‘인권도시’를 표방했지만 도시빈민, 외국인 이주 노동자, 성 소수자, 난민과 같은 차별적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시대적 인권 과제에 관심이 적거나 배타적인 모순적 태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그 밖에도 광주시민연대의 국제연대 활동은 지역 문제와 연결되지 못하였다는 한계도 갖는다. 5·18 세계화의 성과를 지역 시민사회 내에서 공유, 확산하기 위한 전략적 기반이 취약했다. 짧지 않은 시기에 수집된 정보는 운동 범위를 확산하는데 활용되지 못했고, 아시아 문제를 연구하여 이론적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연구 성과가 시민사회로 확산되는 선순환적 활동으로 이어가지 못했다. 일회성 국제연대 이벤트가 빈번하게 추진되면서 자칫 시혜적인 ‘불균형적 상호관계’로 이어지는 위험을 노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광주시민연대가 주도하고 다양한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를 통해 이루어진 ‘5·18 세계화’ 담론 실천은 이후 ‘민주화 성지로서 국제적 역할 담론’(1994년), ‘세계화 미래지향 담론’(1996년) 그리고 ‘국제적 인권도시 담론’(1998년)으로 이어지면서 5·18의 의미와 성과를 세계적으로 확산하는데 나름 긍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기반은 이후 추진된 광주비엔날레(1994~), 아시아문화전당 조성(2014년 개관), 세계 인권도시포럼 개최(2011~)에 토대를 제공하였다.

04

5·18 세계화의 제도화: 5·18기념재단 활동을 중심으로

1990년대 광주시민연대 활동에 이어 2000년대 이후에는 5·18기념재단이 그 성과를 이어받았다. 1994년 설립된 5·18기념재단은 초기에는 재원부족으로 관련 활동을 하지 못했다. 그러다가 1998년 광주시가 관리하던 '5·18피해자 성금'이 5·18기념재단으로 이관되고, 오월 관련단체가 재단운영에 참여하면서 그 역할이 증대되었다. 이후 5·18 세계화 관련 사업은 5·18기념재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에 5·18 20주년을 맞이하여 개최된 5·18기념행사에 정부지원이 대규모로 이루어졌고,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는 5·18기념사업을 지원하는 예산이 공식 편제되었다. 재원이 안정적으로 확보됨에 따라 기념사업과 그 일환으로 진행되는 국제연대활동은 지속될 수 있었다.

5·18기념재단은 1999년 5월 기념행사 기간에 아시아 국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국가폭력에 저항하고, 관련 진상규명을 위해 싸우고 있는 인권침해 희생자 가족과 시민운동가 모임을 개최하였는데 바로 이 활동이 5·18기념재단이 시도한 첫 국제협력 활동이었다. 이 사업은 이후 아시아 시민사회 주요 의제를 다루는 사회포럼적 연례행사인 광주아시아포럼으로 발전하였다. 특히 2010년에는 3년여 준비 끝에 아시아민주화 운동연대(SDMA, 아시아 5개국 7개단체 참여, 2016년에 SDMA 해소)를 조직하여 아시아 시민사회 의제를 직접 토론하여 결정하는 방식으로 지속 가능한 의제설정 절차를 제도화하고자 했다. 광주아시아포럼은 현재까지도 개최되고 있는 주요 국제행사이다.

또한 5·18기념재단은 광주인권상, 5·18아카데미, 국제인턴사업, 국제 시민단체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들은 단기적 성과를 위한 일회성 이벤트 행사, 국제행사로 동원된 참여자에게 일방향적 행사운영,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공여자 중심 사업을 지양하고자 했다. 또한, 국제행사로 조직된 인적 네트워크를 새로운 연대활동으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⁶⁾

6) "5·18기념재단이 정례적인 기념식에 아시아 지역의 많은 활동가들을 초대함으로써 이들로 하여금 정치적 변화를 가져오는 가능성과 민중의 힘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특히 한국의 경험이라는 것, 서구 국가가 아닌 아시아 국가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또 지역의 모든 활동가들이 정례 기념식에 모여 서로를 알게 되면서 이 지역에서 홀로 민주주의 투쟁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다. 5·18기념재단에서 개최하는 광주아시아포럼과 5·18기념식은 아시아 국가들이 배울 수 있는 현재진행형인 전환기 정의 모델로서 좋은 사례다. 나는 이런 면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한국의 성취에 인상을 받았고 자신들의 나라로 이 모델을 가져가리라고 믿는다. 많은 활동가들에게 전환기 정의가 자신들의 나라에서 여전히 먼 일이지만 5·18 모델은 많은 이들에게 좋은 영감과 방향성을 제시한다"(압 스웨생, 국제NGO활동가, 말레이시아, 2018년에 필자 인터뷰).

5·18기념재단 국제연대활동은 안정적 재원을 통해 연례화되면서 양적인 성장을 이뤘다. 물론 이러한 외형적 성장에 대한 비판도 있다. 국외 현장에서 진행하는 국제연대가 아닌 광주로 활동가를 초청하는 이벤트 행사가 여전히 주를 이루고 있고 제도화된 틀 내에서 비교적 온건한 방법으로 추진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시혜적인 자선사업처럼 이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국제연대활동이 소수의 특정 단체의 지원속에서 추진되었다면 2000년대 국제연대활동은 축적된 네트워크에 기반함으로써 독립적 국제연대 활동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진전이 있었음은 분명하다.

05

맺음말

한국 사회 내부에 다양한 사회 모순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국제 인권과 민주주의 문제를 다루고 국제교류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권문제를 겪고 있는 다른 국가 시민들과의 국제연대사업은 결국 우리 민주주의를 완성 시켜가는 또 다른 길이기도 하다. 이점은 광주시민연대를 비롯한 광주지역의 국제연대 활동에도 적용될 수 있다.

여러 한계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5·18 세계화'를 이끌었던 광주시민연대가 이룬 성과는 소중한 경험이 아닐 수 없다. 그것은 오늘날 광주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국제사업의 초석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오늘날까지 그동안 추진되었던 국제연대활동이 가지는 한계를 잘 평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5·18 세계화'를 위한 국제연대활동에서 주로 '추모와 의례' 성격이 강조되고 시대적 과제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한 '저항성과 운동성'이 반영된 연대활동은 축소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5·18에 대한 왜곡과 지역주의에 대처하기 위해 가능한 자원이 모두 동원되면서 정작 국제연대활동은 일회적 행사 위주로 이루어졌고 국제연대가 지역 시민사회와 유기적 연계를 맺지 못했다는 점 등도 지적할 수 있다. 그 결과 '5·18 세계화'는 지속 가능한 대안적인 국제연대활동으로 발전하지 못했다.

오늘날 '5·18 세계화'가 이루어졌다고 하기는 어렵다. 진정으로 5·18 세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일회적인 이벤트성 행사를 지양하고 국제연대가 지속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사업들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 국제적 사안은 지역의 현안과 연계되어 다뤄져야 하며 연대의 성과는 다시 시민사회로 확산될 수 있어야 한다. 난민 등 소수자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하며 국제연대가 시혜적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주의도 요구된다.

결국 광주가 추진해온 '5·18 세계화'는 세계의 무수한 '1980년 광주'를 돕는 길이며 당시 '1980년 광주'를 지금 시점에서 돕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을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일은 다른 지역에서 힘들게 저항하고 있는 또 다른 '광주'와 손잡고 **마음으로부터** '연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광주뿐만 아니라 진정한 국제연대를 원하는 우리 모두를 위한 교훈이기도 하다.

‘5·18 세계화’는 이루어졌는가?

– 5·18 세계화의 의미, 역사, 과제 –

KDF REPORT : Issue & Review on Democracy

발행일 2020년 5월 10일

발행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DF,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KD,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edit@kdemo.or.kr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이 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자의 견해로서 연구소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